남자 고등학생의 하복 착용실태 및 착용감 평가

권 수 애 (충북대학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교수)
최 종 명*(충북대학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교수)
김 인 화 (충북대학교 대학원 의류학전공 박사과정)

생활활동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생활에서 청소년들이 착용하는 교복은 그들의 성장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업능률을 높이고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는 적절한 온열환경 조성과 쾌적한 교복의 착용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남자 고등학생의 쾌적한 하복용 직물과 형태의 개선 및 착용감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청주시와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 640명을 대상으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02년 7월 중순에 하복의 착용실태 및 하복 착용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문항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착용감 평가 문항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에 따른 하복 착용감 요인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F-test, 사후검정으로는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남자 고등학생은 하복 상의인 셔츠는 2매, 하의인 바지는 1매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셔츠의 소재는 폴리에스테르/레이온 혼방직물이 가장 많았으며, 바지의 소재는 양모/폴리에스테르 혼방직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셔츠 안에 속옷을 착용하였고, 속옷의 종류는 라운드 티셔츠, 소매없는 메리야쓰의 순이었으며, 속옷을 착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습관적이라고 하였다. 한편, 하의에는 속옷으로 사각팬티를 가장 많이 착용하였다. 조사대상의 2/3정도는 하복을 변형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과반수정도는 변형시킨 경험이 있었다. 변형형태는 바지의 통을 좁게 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변형이유는 체형에 맞지 않아서, 멋이 있어서라는 순서이었다. 하복의 착용감 평가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셔츠와 바지 착용감 모두 심미적, 운동기능적, 온열생리적 착용감의 3요인이 추출되었고, 셔츠와 바지 모두 세 측면의 착용감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여기서 셔츠의 착용감은 셔츠 소재, 속옷착용여부, 하복변형여부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바지 착용감도 바지 소재와 하복변형여부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로써 남자 고등학생이 독특하고 개성적인 이미지를 선호하여 속옷을 착용하지 않거나 교복을 변형하지만 착용감을 저하시키므로 이에 대한 교육적 지도가 필요하며, 신축성이 좋은 소재로 교복을 제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복소재에 따라 착용감이 달라지므로 획일적인 소재 사용을 지향하고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교복을 시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교복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